▪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민석준 씨와 고은숙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2일(토) 오전 11시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의 실천사항을 힘써 지킵니다.

창 12:1~4a / 시 121 롬 4:1~5 / 요 3:1~17

요 7:25~31

오늘 식당 봉사 : 최경미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조장형 곽상준
다음 주 식당봉사 : 정경례 배삼순 김미현 김진선 권현숙 구성실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6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에게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과 독재정권간의 3년 동안의 내전으로 14만 명이 죽고, 집을 잃고 난민이 된 이들이 600만 명이나 됩니다. 주님, 이 전쟁과 고통의 땅에 속히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그 땅의 어린이들이 더 이상 공포 속에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김금순 김영아 김용길 최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주영 김철수 유영남 김홍기 김희진 박홍재 민병배 문현미 박예림 박창운 허정윤 서정순 양상철 박재란 오미경 원인해 원주신 윤미경 윤주원 최윤선 이국노 김민화 이부곤 장근성 박희순 정영례 정종삼 정한구 왕영순 정현모 정현선 조순덕 차혜심 노미향 최철수 곽권희 황현성 이오복 무명

감사헌금

김세준 김용길 최영혜 김진중 김향자 문홍일 박미연 박창운 허정윤 윤석철 장혜숙 이미혜 이유일 김미희 이자애 정윤성 주명재 최미자 최윤희 한미영 한창희 김미진 허호범 박성실 무명7

생일감사헌금

오송경 윤수진 조항미

녹색꿈헌금

박호규 강영님 시시권 백경임 이윤석 박안수 이은주 이정우 장윤지 장영숙 전인섭 무명4

	백 혜 숙	박 성 희	박 영 희	조 순 덕
	신 진 식	최 경 미	이 소 순	차 혜 심
	장 영 숙	신 영 신	장 영 숙	최 종 미
	노 순 옥	진 정 숙	박 옥 순	조 병 주
	박 홍 재	박 홍 재	조 영 순	김 윤 수
	권 미 숙	박 미 영	박 효 선	정 영 례
	김 금 순	김 금 순	이 순 정	강 순 배
	곽 권 희	윤 수 진	김 재 광	윤 미 경
	안 홍 숙	오 현 정	이 증 자	임 영 선
	정 영 선	홍 춘 숙	김 희 우	송 양 진
	박 혜 경	박 혜 경	임 창 선	이 기 분
	김 재 흥	오 자 영		
	김 재 흥	송 형 운		
	이 범 석	이 진 영		
	이 범 석	곽 상 준		
	신 진 식	윤 성 종		

마음으로 읽는 글

밭

– 정우영

암시랑토 않다. 니얼 내리갈란다. 내 몸은 나가 더 잘 안디, 이거는 병이 아녀. 내리오라는 신호제. 암먼, 신호여. 왜 나가 요새 어깨가 욱씬욱씬 쑤신다고 잘허제? 고거는 말이여, 마늘 눈이 깨어나는 거여. 고놈이 뿌릴 내리고 잢으면 꼭 고로코롬 못된 짓거리를 헌단다. 온 삭신이 저리고 아픈 것은 참깨, 들깨 짓이여. 고놈들이 온몸을 두들김서 돌아댕기는 것이제. 가심이 뭣이 얹힌 것 맹키로 답답헌 것은 무시나 배추가 눌르기 땜시 그려. 웃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린 것은 틀림없이 고추여. 고추라는 놈은 성깔이 쪼깨 사납잖여. 가끔씩 까끌허니 셋바닥이 돋는디 나락이여, 나락이 숨통을 틔우고 잢은게 냅다 문대는 것이제. 등허리가 똑 뿐질러진 것맨치 콕콕 쏘아대는 것은 이놈들이 한테 모여 거름을 달라고 보채는 거여. 밍그적거리면 부아를 내고 난리를 피우제. 그려, 내 몸이 곧 밭이랑게. 근디 말여, 나가 여기 있다가 집에 내리가잖냐. 흙냄새만 맡아도 통증이 싹 사라져뿐진다. 신통허제? 약이 따로 필요 없당게. 하이고, 먼 지랄로 여태까장 그 복잡헌 디서 뀌대고 있었다냐 후회 막심허지. 인자 내 말 알아들었제? 긍게로 나를 짠하게 생각허덜 말그라. 너그 어매는 땅심으로 사는 사람이여. 나가 땅을 버리면 아매도 내 몸뚱이가 피를 토할 거이다. 그러니 내 말 꼭 명심히야 써. 어매 편히 모시겠다는 말은 당최 꺼내지도 마라. 너그 어매 죽으라는 소린게로. 알겄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 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그렇게 노력할 때 참된 생명과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귀한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사십시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향방 없는 삶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명심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욥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장영숙 전도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권미정 집사 유경순 권사

3월	영접위원	박홍재 박병구 김정민 고숙이 이혜령 정연희
	헌금위원	윤석철 정영선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말보다 꽃

항상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아씨시의 성 프란체스코, 구두 전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16:15)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반사적으로 말씀 복음을 떠올린다. 하지만 내 남이 알다시피 우리네 삶에는 '말함'보다 '행함'으로 전해지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 부모와 자식 사이만 봐도 그렇다. 애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삶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말 복음'은 '몸 복음'내지 '삶 복음'에 견들인 각주에 불과하다.

개신교인들은 너무 말이 많다. 막무가내로 복음을 외치기 전에 우리네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지 성찰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지 돌아보라. 그러다 누군가 그 비결을 묻는다면 그때 입을 열어도 족하지 않겠는가. 베드로도 다짜고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들이밀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의 희망을 궁금해 하는 이들에게 답할 준비를 하라(벧전3:14)고 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말이 화육化育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 가까운 벗님과 더불어 소박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다. 첫 노래가 공교롭게도 '말보다 꽃'이란 노래라 여기에 옮겨본다.

말보다 꽃 – 시인 타고르와 성 프란체스코가 내게 준 노래

나무에게 말했네/ 신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말없이 웃으며/ 꽃을 활짝 피워냈다네
사람들이 말하네/ 신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러나 나는 많은 말을 할 뿐/ 꽃 하나 피우지 못했네
많은 말보다 꽃 피운 삶이기를/ 많은 일보다 꽃 가꾼 삶이기를
많은 돈보다 꽃 나눈 삶이기를
그래 그렇게 꽃 내음을 날리며 살래/ 꽃 한 송이 피우며 살래

공손히 '살 보시'를 받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 루스드 폴의 노래, <고등어>

말도 안 된다. 푸른 바다를 자유로이 헤엄치다 등에 푸른 물이 시리도록 들고 싶지, 생산 가게에 누워 들러붙는 파리 떼에 시달리고픈 고등어가 어디 있겠나. 근데 말이다, 내가 집에 들일 들꽃을 찾으러 공터로 나가면 기꺼이 내 손에 꺾여 안해의 손에 들리기를 바라는 꽃이 있듯이, 어쩌면 자신을 골라줘서 고맙다며 제 살을 기꺼이 내어주려는 고등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이 동료 피조물의 생명을 취함으로 제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음을 안다면, 황송한 마음으로 뭇 생명의 '살 보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명은 제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있건만, 너희는 약해서 잡아먹힌다고 하면 그 숭고한 제사상을 발로 걷어차는 격이다.

영화 <라스트 모히칸>은 사슴 사냥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주인공 호크아이(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총으로 사슴을 쓰러뜨리자 모히칸 추장인 아버지는 사슴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형제여, 너를 죽여서 미안하구나. 우리는 진실로 너의 용기와 날램, 그리고 힘에 경의를 표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밥상에서 이렇게 해보자. "감자와 고구마여, 땅속에서 어둠을 견딘 너의 인내를 찬미한다. 오리 형제여, 너의 아름다운 자태와 명석함, 물과 땅을 넘나드는 솜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이다. 어색한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생명에 대한 교감을 잃어버린 우리가 더 어색하다.

– 박총,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중에서